

## 여성이 지각하는 주관적 연령 : 신체적 · 정신적 차원 비교

서은현 · 윤가현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 지각하는 주관적 연령이 신체적 및 정신적 차원으로 구분되는지 알아보고, 평생발달의 관점에서 이 두 가지 차원의 주관적 연령지각 양상을 각각 비교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15세에서 80세까지의 여성 406명에게 주관적 연령을 신체적 및 정신적 차원에서 묻는 질문에 응답하도록 했다. 그 결과 30대에서 40대까지의 연령층에서만 신체적 주관연령과 정신적 주관연령이 유의하게 구분되었고,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두 차원의 주관적 연령이 구분되지 않았다. 또한 두 차원의 주관적 연령지각 양상은 모두 10대에서 20대 중반 정도까지는 자신의 연령보다 더 나이 들게 지각하고, 20대 후반 이후부터는 보다 더 젊게 지각했으며, 실제 연령과 주관적 연령이 교차되는 시기는 신체적으로는 33세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27세로 나타났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이를 먹어 가는데, 출생이후 시간경과에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나이의 기준은 연대기적 연령(chronological age)이다. 일반적으로 생의 전반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연대기적 연령보다 더 어리게 보는 것을 싫어하거나 더 나이 들게 보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경향을 보인 반면, 생의 후반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와 반대의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반응경향은 흔히 '늙었다'와 '어리다'라는 것에 수반되는 낙인(stigma)에서 벗어나려는 심리로 해석될 수 있으

며(Montepare & Lachman, 1989), 아울러 연대기적 연령 뿐 아니라 자신의 연령을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현상도 개인을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특히 연령이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관한 연구에서는 실제 연령보다도 주관적으로 지각한 연령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Barak & Schiffman, 1981).

주관적 연령(subjective age)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초창기에 시도된 대부분 연구들은 인간발달의 각 단계가 언제 시작되는지를 살펴 본 것들이었는데, 젊은층이

노인층보다 노년기 개시 연령을 더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lau, 1956; Drevestedt, 1976; Peters, 1971; Tuckman & Lorge, 1953; Zolar, 1962). 특히 여성이나 노동자 계층은 남성이나 중산층보다 노년기의 개시연령을 더 짧게 지각했으며, 또 지각하는 대상인물이 남성일 때보다 여성일 때 더 젊은 나이에 인생의 발달단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지각했다(윤진, 1988; 윤진·심재웅, 1986; Staats, 1996). 또 주관적 연령지각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성인기 이후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행해졌는데, 이들의 연구결과들은 연구대상자들이 자신의 연령보다 더 짧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또한 연대기적 연령과 주관적 연령간의 차이 정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욱 커진다(김원경, 1990; Barak, 1998; Barak & Rahtz, 1999; Barak & Stern, 1986; Barnes-Farrell & Piotroski, 1989; Henderson, 1995; Hubly, 1994; Wilkes, 1992). 그렇지만 연구대상자들의 연령 폭을 젊은층까지 확대시켰을 경우에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면, Montepare와 Lachman(1989)은 14세부터 83세까지 연구 대상자의 연령층을 확장하여 평생발달의 관점에서 살펴 보았는데, 10대들은 자신의 나이보다 더 나이 들게, 성인초기 단계의 사람들은 자신의 연령과 비슷하게,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 특히 성인 후반기로 갈수록 자신을 실제보다 더 짧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연령지각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을 살펴보면, 신체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그리고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연령을 더 짧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원경, 1990; 윤유경, 1996; Barak, 1998; Barak & Rahtz, 1999; Hubly, 1995).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청소년들에

게서는 반대로 나타났다(손원숙, 1993). 주관적 연령지각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살펴본 Uotinen (1998)도 연대기적 연령과 주관적 연령간의 불일치 정도에서는 문화권간의 양적인 차이만 있었을 뿐, 연대기적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연령은 보다 짧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국내에서 시도된 주관적 연령지각에 대한 연구에서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고하고 있다(손원숙, 1993; 윤유경, 1996). 성별에 따른 주관적 연령지각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일관성을 보이지 않기도 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의 경우 주관적 연령지각을 더 짧게 하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결과도 있다. 이러한 결과의 불일치에 대한 원인은 아직까지 제대로 설명되지 못하고 있지만, 주관적 연령에 대한 질문 자체의 모호성 때문일 수 있다.

흔히 나이 드신 분이 몸은 젊은 사람들보다 못하지만 마음은 늘 청춘임을 강조하는 경우를 볼 때,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연령이 신체와 정신의 측면으로 이분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가 각각 주관적 연령과 관련 있다는 것은 주관적 연령이 신체적 차원과 정신적 차원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12세부터 76세까지 178명(평균연령: 31.90, SD = 16.73)을 대상으로 주관적 연령지각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들은 주관적 연령을 이해하는 반응에서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즉 몇 살로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어떤 사람은 신체적 차원을 근거로 응답한 반면, 다른 사람은 정신적 차원을 근거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특히 중년의 경우 연대기적 연령과 주관적 연령간의 상관이 매우 낮게 나타

남으로써 보다 뚜렷이 나타났다. 또 주관적 연령을 신체적 및 정신적 차원으로 구분하고서 생활만족과의 관계를 살펴본 최근의 연구에서는 두 차원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서은현·윤가현, 2000). 즉 신체적 주관연령의 경우 더 젊게 지각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높은 생활만족 수준을 보인 반면, 정신적 주관연령의 경우에는 더 젊거나 더 나이 들게 지각한 집단이 동일하게 지각한 집단보다 더 높은 생활만족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일차원으로 연구되어 왔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여성이 지각하는 주관적 연령을 신체와 정신의 차원으로 구분해 측정해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연령이 신체적 및 정신적 차원으로 구분이 가능한가, 평생 발달(life-span development)의 관점에서 두 차원의 주관적 연령은 각각 어떠한 양상을 보일 것인가, 연대기적 연령과 두 차원의 주관적 연령의 불일치 정도의 비율은 연령층에 따라 어떠한 것인가 등을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 방 법

###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광주·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406명의 여성들이었으며, 그들의 연령 평균은 39.24세(SD = 16.12, Range = 15-80)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연대기적 연령에 따라서 네 집단으로 구분했는데, 이들은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집단, 30세에서 49세까지의 성인초기 집단, 50세에서 64세까지의 성인중기 집단, 그리고

65세에서 80세까지의 성인후기 집단이었다(표 1 참조).

## 2. 연구도구

### 1) 주관적 연령 측정치

연구대상자들의 주관적 연령을 측정하는 도구는 Barak (1987)의 질문지를 약간 변형한 것이었다. 원래 Barak척도는 ‘느끼는 연령(feel age)’, ‘보이는 연령(look age)’, ‘활동하는 연령(do age)’, ‘관심사 연령(interest age)’의 네 차원으로 나누어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네 차원을 각각 신체와 정신의 측면으로 나누어 질문을 했고, 총 문항은 8문항이었다. 그러나 각 문항들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이해가 미흡해서, 이 중 ‘느끼는 연령(feel age)’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즉 신체적 주관연령에서는 신체나 체력이 몇 살 정도로 느껴지는지, 그리고 정신적 주관연령에서는 정신 혹은 지적인 측면에서 몇 살로 느껴지는지를 물어보았다. 주관적 연령 반응의 측정치는 나이였다.

## 3. 연구절차

자료수집은 1999년 12월부터 2000년 7월까지 8개월 동안 이루어졌으며, 수집방법은 일대일 직접 면접방법 및 여러 명에게 한번에 연구자가 설 명과 질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대부분 질문 받은 즉시 곧바로 응답을 하였으며, 설명을 포함해서 응답에 걸린 시간은 10분 미만이었다.

자료처리는 신체적 주관연령과 정신적 주관연령이 유의하게 구분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연령의 증가에 따라 두 차원의 주관적 연령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

표 1. 연령층에 따른 연대기적 연령과 주관연령의 평균(SD)

	청년 n = 137	성인초기 n = 169	성인중기 n = 64	성인후기 n = 36
연대기적 연령	22.20 (4.21)	40.03 (5.68)	55.11 (5.08)	72.17 (4.69)
신체적 주관연령	24.26 (6.12)	39.12 (7.44)	49.02 (8.83)	67.67 (6.45)
정신적 주관연령	23.64 (5.19)	36.78 (6.96)	48.67 (8.52)	67.83 (5.87)

기 위해 각각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신체적 주관연령과 정신적 주관연령의 두 차원이 유의하게 다른지 그리고 연령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령층’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그리고 ‘주관적 연령’을 피험자내 변인으로 한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했다. 표 2에 제시된 분석결과를 보면, 연령층별로 주관적 연령의 차이를 보였지만, 이는 설명이나 해석을 요하지 않는 당연한 결과이다. 즉 이 분석에서의 초점은 피험자간 변인의 차이가 아니라 피험자내 변인에서 신체적 주관연령과 정신적 주관연령의 차이 여부이다. 표 2를 보면, 주관적 연령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지만, 주관적 연령과 연령층간의 상호작용이 유

의하게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네 연령집단 중에서 30대에서 40대의 성인초기 집단에서만 신체적 주관연령과 정신적 주관연령이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났고(F = 5.21, p < .05),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성인초기 집단의 신체적 주관연령 평균은 39.12세(SD = 7.44)이고, 정신적 주관연령 평균은 36.78세(SD = 6.96)로, 정신적 주관연령을 신체적 주관연령보다 유의하게 짧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이 지각한 신체적 차원과 정신적 차원의 주관적 연령이 연대기적 연령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연대기적 연령에 따른 주관적 연령지각의 단순회귀분석을 각각 실

표 2. 주관적 연령의 반복측정 변량분석 표

변량원	SS	df	MS	F
피험자 간 연령층	1030774.3	3	43591.4	610.5***
피험자 내 주관적 연령	70.6	1	70.6	3.1
주관적 연령 × 연령층	219.8	3	73.3	3.2*
오차량	8995.7	390	23.1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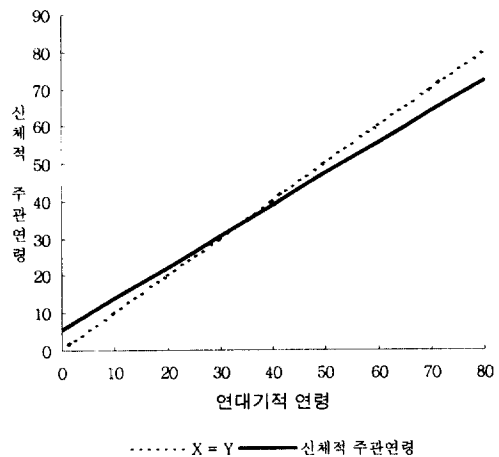


그림 1. 신체적 주관연령 지각 양상

시하였다. 구해진 회귀방정식은 “신체적 주관적 연령 지각=0.834×실제연령+5.439”와 “정신적 주관적 연령 지각=0.831×실제연령+4.402”이며, 이를 각각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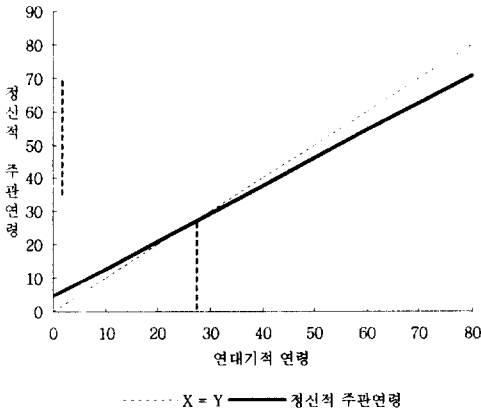


그림 2 정신적 주관연령 지각 양상

주관적 연령을 연대기적 연령과 동일하게 지각하는지, 혹은 더 젊거나 더 나이 들게 지각하는지를 보려면, 회귀선(굵은 실선)과 기준선(실선; 연대기적 연령과 주관적 연령이 동일한 선)을 비교하면 된다. 기준선과 같으면 주관적 연령을 연대기적 연령과 동일하게 지각하는 것이고, 기준선 아래면 더 젊게 지각하는 것이고, 기준선 위이면 더 나이 들게 지각하는 것이다. 10대들은 주관적 연령을 더 나이 들게 지각한 반면, 20대에 가까워질수록 연대기적 연령과 동일하게 지각하고, 그 이후 연령층에서는 보다 더 젊게 지각하는 경향이 보였고 그 불일치 정도는 점점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체적 차원과 정신적 차원 둘 다 유사했으나, 그 양상이 전환되는 연령이 신체적 주관연령은 약 33세, 정신적 주관연령은 약 27세로 상이하게 나타났다(그림 1과 그림 2 참조).

한편, 연대기적 연령과 두 차원의 주관적 연령

간의 불일치 정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연령층에 따라서 연대기적 연령보다 더 나이 들게 지각한 집단, 연대기적 연령과 동일하게 지각한 집단, 연대기적 연령보다 더 젊게 지각한 집단으로 나누어 그 비율을 알아보았다. 연대기적 연령에서 신체적 주관연령과 정신적 주관연령을 각각 뺀 차이가 음수일 경우 더 나이 들게 연령지각을 하는 것이고, 양수일 경우에는 더 젊게 연령지각을 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만 연령이 계산되었으나 응답자들이 사실상 한국 연령을 기입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차이 값이 0일 때 뿐 아니라 ± 1인 경우에도 연대기적 연령과 동일하게 주관적으로 연령지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일반적인 연령대 기준이 되는 10년 단위로 나눔으로써 자신의 연령과 주관적 연령간의 불일치 정도가 자기 연령대에 국한되어 있는지, 그 이상인지를 살펴보았다. 즉 연대기적 연령과 두 차원의 주관적 연령지각 간의 불일치 정도를 ‘-30~-21’, ‘-20~-11’, ‘-10~-2’, ‘-1~-1’, ‘+2~-10’, ‘+11~+20’, ‘+21~+30’, ‘+31~+40’ 집단으로 나누어 연령층에 따라 그 비율을 살펴본 결과를 표 3에 제시했다.

10대에서 20대까지의 청년집단의 경우 신체적 주관연령 지각과 정신적 주관연령 지각 분포 둘 다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즉 연대기적 연령과 동일하게 지각하는 경우가 약 44.1%, 더 나이 들게 지각하는 경우가 약 42.5%를 차지했고, 더 젊게 지각하는 경우는 13.0%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그 이후 연령층인 30대 이상에서부터는 연대기적 연령보다 젊게 연령 지각하는 경우가 적게는 50.6%에서 많게는 80.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이 높아져 갈수록 연대기적 연령보다 더 젊게 주관적 연령을 지각하는 비율이 상대

표 3. 연대기적 연령과 주관연령의 불일치 정도의 비율(빈도)

주관 연령	연령층	불일치 정도							
		-30~-21	-20~-11	-10~-2	-1~+1	+2~+10	+11~+20	+21~+30	+31~+40
신 체 적	청 년 기	.7( 1)	4.3( 6)	37.5(51)	44.1(60)	13.0(18)			
	성인초기	.6( 1)	3.6( 6)	20.4(34)	24.9(42)	48.8(82)	1.8( 3)		
	성인중기			7.9( 5)	17.1(11)	48.5(31)	20.5(13)	4.8( 3)	1.6( 1)
	성인후기			11.2( 4)	8.4( 3)	75.0(27)	2.8( 1)	2.8( 1)	
정 신 적	청 년 기		.7( 1)	43.8(60)	48.2(66)	7.3(10)			
	성인초기			18.3(30)	25.1(41)	45.9(75)	7.8(13)	2.4( 4)	
	성인중기			11.7( 7)	23.3(14)	36.7(18)	20.1(12)	8.4( 5)	
	성인후기			5.6( 2)	19.5( 7)	66.8(24)	5.6( 2)	2.8( 1)	

적으로 더 높아졌다. 이러한 불일치 정도는 두 차원 모두 유사했으나, 30대와 40대의 경우, 연대기적 연령보다 더 나이 들게 지각한 비율이 신체적 주관연령은 24.6%이나 정신적 주관연령은 18.3%로, 두 차원의 주관연령과 연대기적 연령과의 불일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인생의 단계를 거치는 동안 여성이 자신의 나이를 주관적으로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나이를 먹고 있는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가를 평생발달의 관점에서 알아본 것이었다. 지금까지 주관적 연령지각 연구들은 대부분 단일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연령지각양상을 신체적 차원과 정신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연령층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신체적 주관연령과 정신적 주관연령의 구분은 30대에서 40대까지의 성인초기 집단에서만 이유히 다르게 나타나 구분이 가능했고, 나머지 연

령층에서는 두 차원의 주관적 연령이 구분되지 않았다. 30대에서 40대까지의 여성은 정신적 주관연령(M = 36.78, SD = 6.96)을 신체적 주관연령(M = 39.12, SD = 7.44) 보다 더 젊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인기 여성의 경우 신체적으로 느끼는 연령은 연대기적 연령과 비슷하게 나이 들어감을 느끼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젊게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신체적 노화를 확연히 느끼게 되는 연령층에서 객관적인 연령과 주관적으로 느끼는 연령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연령에 대한 만족이 줄어들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실제보다 더 젊게 주관적 연령지각을 하는 것은 자신의 노화에 대해 저항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려는 일종의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Montepare & Lachman, 1989).

신체적 및 정신적 차원의 주관적 연령 지각의 양상은 10대에서 20대 후반까지는 자신의 연령보다 더 나이 들게 지각하고 있는 반면 20대 후반

이후부터는 연대기적 연령보다 더 젊게 지각했다. 또한 연대기적 연령과 주관적 연령간의 차이 정도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점 더 커지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양상은 단일 차원의 주관적 연령 지각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고 있다 (김원경, 1990; 윤유경, 1996; Barak, 1998; Barak & Rahtz, 1999; Barak & Stern, 1986; Barnes-Farrell & Piotroski, 1989; Montepare & Lachman, 1989; Wilkes, 1992). 유일하게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연령을 신체적 차원과 정신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신체적 주관연령은 33세를 기점으로, 그리고 정신적 주관연령은 27세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 연령에서는 자신의 연령보다 더 나이 들게 느꼈고 그 후 연령에서는 더 젊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주관적 연령이 신체와 정신의 두 차원으로 구분이 가능했던 것은, 신체적인 차원에서는 생물학적 최적 연령이나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이 존재하는 반면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가치에 따라 이상적(ideal)이라고 여겨지는 나이가 각기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 이상적인 나이가 바로 정신적으로도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은 보다 나이든 연령, 즉 인생 경험이 많고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생의 후반기에 가까워질수록 정신적으로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Barak, Stern 그리고 Gould(1988)가 지적한 대로 이상연령(ideal age)에 맞추어 자신의 연령을 지각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이상적으로 지각하는 연령이 몇 살이냐에 따라서 자신이 현재 지각하는 주관적 연령이 달라지게 되고, 동일한 주관적 연령을 지각했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적응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서은현 · 윤가현, 2000).

지금까지 주관적 연령 지각에 관한 연구들은 단일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히 30대 · 40대 여성이 신체와 정신의 주관연령이 뚜렷이 차이가 남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두 차원으로 구분해 연구하는 것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연령 현상을 보다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별에 따른 주관적 연령 지각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즉 여성의 경우 신체적 차원에서 주관적 연령을 응답했다면 남성과 차이가 없겠지만, 정신적 차원에서 주관적 연령을 응답했다면 남성보다 더 젊게 지각한 것으로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두 차원의 주관적 연령이 구분되지 않은 연령층이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주관적 연령을 신체와 정신의 두 차원으로 구분해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해 볼 수 있고 이는 탐색적인 연구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주관적 연령 지각을 신체적 차원과 정신적 차원으로 구분해 비교 분석한 연구가 앞으로 보다 더 행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횡단적(cross-sectional) 설계로 주관적 연령지각 양상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므로 결과를 해석할 때 이 점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원경 (1990). 성인 · 노인기의 주관적 연령지각에 따른 심리적 적응 양상.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은현, 윤가현 (2000). 주관적 연령지각과 생활만족도 및 건강관심과의 관계. 한국노년학연

- 구, 9, 131-148
- 손원숙 (1993). 주관적 연령지각과 자아개념 및 생활만족도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유경 (1996). 주관적 연령의 예측 요인과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윤진 (1988). 인생의 단계와 그 연령기준(I)-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그리고 취업 및 은퇴적령기에 대한 대학생과 노인의 지각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7(2), 127-139.
- 윤진, 심재웅 (1986). 인생의 단계와 그 연령기준(II)-결혼, 출산 시기에 대한 대학생과 노인의 지각비교-. 한국노년학, 6, 5-12.
- Barak, B. (1987). Cognitive age: A new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measuring age identit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5, 109-128.
- Barak, B. (1998). Inner-ages of middle-aged prime-lifer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6, 189-228.
- Barak, B., & Rahtz, D. (1999). Perceived youth: Appraisal and character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9, 243-269.
- Barak, B., & Schiffman, L. (1981). Cognitive age: A nonchronological age variable.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8, 602-606.
- Barak, B., & Stern, B. (1986). Subjective age correlates: A research note. *The Gerontologist*, 26, 571-578.
- Barak, B., Stern, B., & Gould, S. (1988). Ideal age concept.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25, 146-152.
- Barnes-Farrell, J., & Piotroski, M. (1989). Worker's perceptions of discrepancies between chronological age and personal age: 'You're only as you feel'. *Psychology and Aging*, 4, 376-377.
- Baum, S., & Boxley, R. (1983). Age identification in the elderly. *The Gerontologist*, 23, 543-537.
- Blau, W. (1956). Changes in status and age identific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1, 198-203.
- Drevenstedt, J. (1976). Perceptions of onsets of young adulthood, middle age, and old age. *Journal of Gerontology*, 31, 53-57.
- Henderson, K., & Goldsmith, R. (1995).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ive ag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5, 447-458.
- Hubly, A., & Hultsch D. (1994). The relationship of personality trait variables to subjective age identity in older adults. *Research on Aging*, 16, 415-440.
- Montepare, J., & Lachman, M. (1989). "You're only as old as you feel": Self-perceptions of age, fears of aging, and life satisfaction from adolescence to old age. *Psychology and Aging*, 4, 73-78.
- Peters, G. (1971). Self-conceptions of the aged, age identification, and aging.



- Gerontologist*, 11, 69-73.
- Tuckman, J., & Lorge, I. (1953). When does old age begin and a worker become old? *Journal of Gerontology*, 8, 483-488.
- Zola, I. (1962). Findings about age among older people. *Journal of Gerontology*, 17, 65-68.
- Staats, S. (1996). Youthful and older biases as special cases of a self-age optimization bia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3, 267-276.
- Uotinen, V. (1998). Age identification: A comparison between finnish and north-american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6, 109-124.
- Wilkes, R. (1992). A structural modeling approach to the measurement and meaning of cognitive ag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 292-301.

# Women's Perceived Subjective Age: A Comparison between Physical and Mental Dimensions

Eun-Hyun Seo · Gahyun Yo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attempted to explore if subjective age could possibly be distinguished into two different dimensions, physical and mental,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between each pattern of subjective age and chronological age. Four hundred and six participants from 15 to 80 years of age were asked about both physical and mental subjective ag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hysical and mental subjective ages in the total sample, whereas the 30s or 40s group showed different pattern of physical subjective age from that of mental subjective age. Participants in their teens held older both physical and mental subjective age than their chronological age, whereas during the early adults years, maintained same age identities, and across the middle addle and later adult years reported younger age identities. The age of turning point between older and younger age identity was slightly different by each pattern of subjective age - that of physical subjective age was 33, and mental subjective age 27.